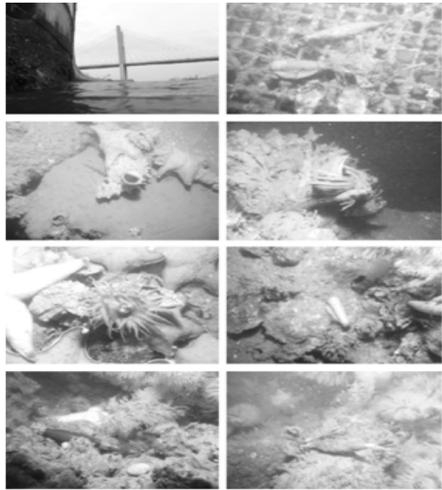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바다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불가사리와 남추, 각종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월 25일 해양공원 수중조사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에년에 비해 봄이 10여일 일찍 온듯 합니다. 작년 이맘 때는 냉이를 쫓았는데, 지금은 꽃이 활짝 폼네요! 작은 팽나무 화분에 이번 겨울 산에서 데려온 흑백알락나비에 알베레를 낙엽과 덮어 두었습니다. 팽나무에 씩이나니 온석이 꼬물꼬물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힘들었는지 하루 쉬었다 다음날 얼마나 배고팠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먹기 바쁘네요. 작은 팽나무잎 두잎정도 먹고 이제 정신이 드는지 저를 주시하네요! 봄은 생명의 움직임 인 듯 합니다.

휴지를 뽑으면 나무가 뽑혀요. 휴지보다는 손수건!

글 · 서울해초초등학교 4-5 이원

우리는 손수건보다는 휴지나 티슈에 더 익숙하다. 요즈음은 거의 손수건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빨기가 귀찮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은 좀처럼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몇 주 전에 환경단체와 함께 황토 손수건을 만들고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들이 휴지나 티슈를 평균 3장씩 사용한다하면 몇 억이 넘는 돈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무들을 베어야한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열대우림의 나무도 점점 없어져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얼마 후에는 지구에 나무란 나무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우리도 살지 못한다.



황토손수건을 사용하면서 웬지 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뿌듯하다. 내가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우리가 휴지를 한 장 뽑을 때마다 나무 한 그루가 뽑힌다고 생각한다면 손수건을 사용하는 일은 나무도, 지구도 우리가 지키는 일인 것 같다.

* 손수건 사용운동의 후기를 모집합니다. 연락주시면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신고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시선집중

여수시가 발표한(3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의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오염현장인 신덕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본부 논평

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는 측정 시기와 위치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GS칼텍스원유부두기름유출사고시민대책본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3월 10일 발표한 사고지역 조사결과와 여수시가 3월 14일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와 차이는 측정시기와 측정 위치에서의 차이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지역에서 사고후 8일이 지나서 순수 대기 중 농도측정을 한 것이며, 시민대책본부는 사고발생 5일후에 원유가 남아있던 자갈과 흙, 바위를 들어 작업하는 마을주민들의 피부와 호흡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이다.

- 시민대책본부의 측정 대상은 방제작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이며, 실제 마을 주민의 직접 노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용 뱃지를 착용하고 방제작업을 전개하였고, 이후 작업과정을 측정한 투입 뱃지를 수거하여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식은 자갈이나 흙, 바위 등을 직접 들어내고 원유를 제거하는 마을주민들이 몸을 숙이고 온종일 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할 것이다.

-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방파제나 폐교에서 차량을 이용한 거리별 지점을 통한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지역 측정된 방식이며, 3개 지점의 측정결과가 사고가 없는 일반지역의 대기중 농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사고 발생 8일-9일이 지나 납사와 원유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사라진 후 측정된 것으로 당연히 측정치는 기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을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여수시와 중앙정부는 대체 사고지역에서 무엇을 위해 조사하였고, 발표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림, 주민들이 피병으로 입원한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시민대책본부는 벤젠 등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 마을 주민들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고, 향후 어떤 건강상 위해성이 나타나서, 왜 위험할지, 그리고 사고기업과 여수시, 정부로부터 어떤 피난과 구제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5일이 지나 늦었지만 긴급하게 본 시민대책본부의 참여기관인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의 의뢰속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측정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전문기관이라면,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현장의 주민건강과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고발생 당시부터 2월8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등 유해

화학질의 농도를 꾸준히 측정해서 주민 위해성이 사고발생일에서부터 8일후에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과학적으로 결과 발표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사고 발생초기 산단 노동자와 마을주민, 지역사회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의 단기간 고농도 노출에 따른 집단 대피와 중장기적인 주민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건의료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으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상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했다.

- 조사를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과 이를 발표한 여수시는 사고로 유출된 납사와 원유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노출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의 영향도 없다는 말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또한 연인원 540여명의 주민들이 구토와 두통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모두 피병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마을주민들과 시민대책본부에서 요구하는 주민진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정부와 여수시, 전라남도는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조사하고, 완전한 복원을 위해 즉각적인 민간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정부는 사고실태조사, 지역과 자연생태계 피해조사, 복원대책과 영구적인 평가 등을 수행할 객관성을 가진 민간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합동조사단을 신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신뢰

(1면에서 이어짐)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적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집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외,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날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슴기살규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할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범시민대책본부, 가슴기살규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발전대군민대책위, 녹색교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하지 못하는 기관이, 지역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복원대책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 시민대책본부는 그동안 GS칼텍스, 여수시, 중앙정부가 보여준 사고의 조사와 대응이 실수 또는 나쁜 의도에 의해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는 유출량 산출에서의 거짓, 방제작업에서의 체계적인 못한 대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입만 믿는 부실한 조사 등으로 환경 훼손과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 이에 시민대책본부는 사고기업, 여수시, 중앙정부에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3월 17일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본부 (2014년 3월 17일 기준 21개 단체)



알립니다

친환경 살림을 응원합니다!

폐식용유 버리지 마세요~ 친환경 비누로 교환해 드립니다. 튀김하고 남거나 오리, 삼겹살 먹으며 나오는 오일들,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서 양심과 고민 많으셨죠?! 음료용기에 페오일을 모아 오시면 폐식용유(동물성오일)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빨래비누로 교환해 드립니다. 양념된 고기를 구운 기름은 따로 모아주세요. 청소용 비누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구를 아끼는 작은 실천 함께 시작해요.

《교환 장소》

- 여수환경운동연합 ☎ 682-0610
신기동 20-9번지 2층
김혜진의자연주의 ☎ 010-7722-6370
여서동 479 광주은행 건물 3층
국보보이차 ☎ 010-3938-8585
소호동 1197-1

《교환 방법》

가정용 페오일(식용유, 동물성오일) 200ml당 폐식용유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세탁 비누(200g) 1개 즉시 교환

녹색평론 독자모임을 진행합니다.



'녹색평론'을 아시나요?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녹색평론독자모임'은 한 달에 2번, 녹색평론독자모임을 진행합니다. 초록세상에 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비취 010-9768-0446

녹색평론 독자모임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김성남

20대 중반 히피를 꿈꾸며 인도와 히말라야 오지를 방랑하면서 지낸 때에도 항상 그리스인 조르바가 있었다. 무수한 별들이 쏟아지는 라자스탄 사막에서나 히말라야에서의 설산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도 나에게겐 조르바가 있었다. 조르바는 젊은 날 나의 영혼의 동반자였으며 스승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 「영혼의 자서전」에서 조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에 가장 깊은 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면 나는 아마 호메로스, 부처, 베르그송, 니체와 조르바를 꼽으리라. 첫 번째 인물인 호메로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운을 되찾게 하는 광채를 우주 전체를 비추고 태양처럼 평화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눈이었다. 두 번째 인물인 부처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는 한없이 깊은 새까만 눈이었다. 세 번째 인물인 베르그송은 젊은 시절에 해답을 못 얻은 나를 괴롭혔고, 철학의 온갖 문제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네 번째 인물인 니체는 새로운 고쳐로 나를 살찌게 했고, 불운과 괴로움과 불확실성을 자부심으로 바꾸도록 가르쳤다. 다섯 번째 인물인 조르바는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힌두교에서 이른바 구루라 일컫고 아토스산의 승려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삶의 길잡이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나는 조르바를 택했으리라." 얼마나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자신을 숨기며 감추려 하는가. 그러나 조르바는 다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규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아닌 남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가. 그러나 조르바는 자유를 가르치며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라고 가르친다.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 저 | 이윤기 역 | 열린책들 | 2009.12.20

기후보호주간 행사에 초대합니다.

매년 4월 22일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이번 지구의 날은 환경부 기후변화 주간과 연계하여 16일부터 19일, 4일간 진행됩니다. 기념식, 학술행사와 함께 주제실천 활동으로 걷기 대행진, 자전거행진, 친환경 로컬푸드 전시장운영과 캠페인, 문화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바다이야기>, <기후변화법 제정 서명운동과 손수건 사용 홍보>, <천연염색손수건 만들기>, <유기농 솜사탕 먹고 나무심자!>부스를 운영합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진행되오니 회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